5. 조선이 옛 도를 회복하지 못함을 논함

손님 이미 쓸모없는 지난 일은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대의 일을 논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주인 알겠습니다.

손님 지금 성상(聖上)* 께서 왕위에 오르시고 여러 현명한 사람들이 조정에 포진해 백성들이 기쁘게 태평한 세상을 기대한지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의 곤궁한 생활과 각박한 풍속과 해이해진 기강과 바르지 못한 선비들의 습속에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심(天心)이 기뻐하지 않아 홍수와 가뭄이 불시에 닥치고 일식과 월식이 나타나며 성변(星變)* 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주인 (이마를 찌푸리고 한참동안 있다가)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손님 그래도 시험 삼아 말을 해 보십시오.

주인 내가 그대를 위하여 근원부터 다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태조

는 쇠퇴한 고려를 이어 신령한 무용(武勇)으로 국운을 열었고, 왕통을 이은 임금 가운데 세종이 계셨으니, 세종과 같은 성군은 고려 때에는 없었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키니 비 오고 그치는 것이 모두 때에 맞게 적당했습니다. 유학을 숭상하고 도를 중시하여 인재를 양육했으며, 예법을 제정하고 음악을 만들어 후손에게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에 성대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러 남은 혜택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으니, 우리나라 만년의 운이 세종 때에 비로소 기틀이 잡혔습니다. 단지 한스럽게도 위에는 요·순과 같은 임금이 계셨는데 아래에 후직(后稷)•과 설(契)•과 같은 신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허조(許稠)•나 황희(黃喜)•는 모두 세속 가운데서 좀 특출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선왕의 도를 밝혀서 성스러운 임금을 보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이 때 백성들의 살림은 조금 넉넉하고 인구가 많아지는 데 그쳤고, 세상을 다스리는 도리는 끝내 상나라와 주나라에 비해 부끄럽게 되었으니, 뜻있는 선비들의 한탄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 성상(聖上) : 선조를 말함.
- 성변(星變) : 평소 때와 다른 별자리의 기이한 현상. 당시는 성변을 포함한 재앙과 이변이 인간의 일과 관계있다고 여겼다.
- 후직(后稷) : 순임금의 신하로 농사를 맡음. 앞에 나옴.
- 설(契) : 순임금 때 사구(司寇, 형벌을 맡은 관리) 벼슬을 하였고, 훗날 상나라의 시조가 됨. 앞에 나옴.
- 허조(許稠) : 자는 중통(仲通) 호는 경암(敬菴)으로 세종 때 정승을 지냄.
- 황희(黃喜) :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자는 구부(懼夫), 호는 방촌(厖村)이며 세종 때 정승을 지냈고, 청렴한 명신으로 알려져 있다.

문종은 일찍 돌아가셔서 끝내 은택을 다 베풀지 못했고, 성종에 이르러서는 영특하고 슬기로운 자질이 천고에 뛰어나 참으로 우리나라의 성군이셨습니다. 그러나 국정을 맡은 대신들이 못나고 무식하여, 경연(經筵)•에서 강론할 즈음에 본성과 감정의 문제에 마음을 두지 않는 말•에 대해서는 다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당시에 태평한 날이 오래 계속되어 나라는 부유하고 백성은 넉넉하니, 크고 작은 신료들이 나라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온통 제멋대로 놀기만 하고, 방자함을 즐기고 언행의 단속을 꺼리고 소신 있게 우뚝 서기를 싫어하고 부화뇌동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비록 훌륭한 일을 할 임금을 만났더라도 융성한 정치와 교화는 보이지 않고, 전해 내려온 풍속이 지금의 폐단이 되고 있으니, 뜻있는 선비의 탄식이 여기서 다시 일어납니다.

중종은 연산군의 잔인하고 포악한 정치 끝에 왕위를 이어, 마음을 가다듬고 정치를 도모하여 자리에 편안히 앉지도 못하고 현명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기묘년에 조광조(趙光祖)• 같은 분이 있어 성

- 경연(經筵) : 임금 앞에서 유학의 경서를 강론하는 일.
- 본성과 … 않은 말 : 구종직(丘從直)이 『대학』을 강론하면서 "제왕은 태어나면서 잘 알고 편안하게 행동하는 성인이므로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공부가 필요 없다."라고 한 말을 가지고, 성리학의 수양 문제에서 자신의 성(性: 본성)을 보존하고 정(情: 감정)을 잘 살피는 것이 주요 공부인데, 그것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율곡이 지적한 말.
- 조광조(趙光祖)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菴)이다. 중종 때 개혁정치를 주도하다가 모함으로 실패하였다.

리학(性理學)으로 임금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니, 임금을 사랑하기를 어버이처럼 하고 자기 몸을 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뛰어난 인재들을 두루 불러들여 임금의 총명을 열어 넓히고, 흔쾌히 세상의 바른 도리를 만회하고 삼왕 · 오제의 자취를 따르려는 뜻을 가졌습니다. 유림(儒林)*들이 솟구쳐 일어나고 백성들도 큰 기대를 가져, 옛날 요 · 순 시대의 빛나던 업적과 집집마다 훌륭한 인재가 넘치는 현상을 머지않아 볼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조광조의 벼슬길이 너무 빨라 현실적 문제를 다루는 학문을 아직 크게 이루지 못하였고, 그와 함께 일한 사람들 가운데 충성스럽고 현명한 사람이 많았지만, 명성만을 좋아하는 선비들이 섞여 나아오는 것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논의는 크게 날카로웠고 일을 하는 것도 점진적이지 않았으며,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으로 근본을 삼지 않고 다만 겉치레를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간사한 무리들이 이를 갈며 덫을 놓아 틈을 엿보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신무문(神武門)*이 밤에 열리자 여러 현명한 사람들이 모두 한 그물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후로 선비들의 사기가 꺾이고 상하여 나라의 명맥이 거의 끊어지게 되었으니, 뜻있는 선비의 개

- 유림(儒林) :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 또는 선비사회.
- 신무문(神武門) : 경복궁의 북문.
- 남곤(南袞) :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호조 · 병조 · 이조판서 등을 지냈다. 기묘사화(己卯士禍)를 꾸며 신진사류를 숙청하였다.

탄은 여기에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 마음은 본래 착하고 공론(公論)은 없애기 어려운 것이니, 남곤(南袞)*과 심정(沈貞)*의 기세가 막 식어가자 선비들의 바른 논의가 기묘년의 현명한 사람들을 다시 높이게 되었고, 중종 말년에는 학문하는 선비가 조정에 많이 모였습니다.

이때에 인종은 동궁에서 덕을 기르고 계셨는데, 좋은 평판이 일찍부터 들려서 마치 가뭄에 비구름을 기다리듯 억조의 백성들이 우러러 받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즉위하니 사방에서 호응하였습니다. 선왕의 상을 치르면서 미음만 드시다가 얼굴이 검게 되었으며, 이것저것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도 몸소 실천한 교화(敎化)*가 이미 나라에 미쳤습니다. 여러 현명한 사람들이 성스럽고 밝은 임금을 우러러 믿고, 모두가 하 · 은 · 주 삼대의 정치를 머지않아 회복할 수 있으리라 여겼는데, 하늘이 보살피지 않아 우리 임금을 빼앗아 가리라고 어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들이 시세를 틈타서 선량한 사람들을 베어 죽이고 반역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함정을 만들어 놓으니, 선비의 무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은 벗어날 수 없었

- 심정(沈貞) :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형조판서에 올랐다가 조광조 일파의 탄핵으로 파직, 정국공신도 삭탈되자 원한을 품고 남곤, 홍경주 등과 기묘사화를 일으켜 사류를 모조리 숙청하였다.
- 교화(敎化) : 가르쳐 좋은 방향으로 인도함.

습니다. 을사(乙巳)의 화•는 나라를 망하게 하기가 충분했는데, 나라의 운명이 면면히 멀리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선대 임금들이 덕을 쌓은 여경(餘慶)•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뜻있는 선비의 개탄은 이에 극에 이릅니다. 명종은 영특하고 조숙하여 조금도 덕을 잃은 일이 없었는데, 이기(李芑)•와 윤원형(尹元衡)•의 무리가 총명을 막고 가려 현명한 사람을 해치고 나라를 그르쳤습니다. 충신은 입을 다물고 길가는 사람들은 눈짓으로만 서로 알아보는 때가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이 임금의 성스러운 마음을 이끌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니, 윤원형이 죄를 얻고 사림이 흥기하여 추운 겨울 뒤에 봄볕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직이 불행하여 명종이 돌아가시니, 백성은 아버지를 잃은 것 같았고 여러 귀신들도 임자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지금의 임금께서 선왕이 남겨주신 교훈을 공손히 받들어 따로 정한 빈소에서 상을 치르시며, 맡겨주신 중요한 임무를 받아 귀신과 사람의 기대에 맞게 하시니, 성스러운 덕은 날로 빛나고 임금의 직무에는 결함이 없습니다. 이는 바로 뜻있는 선비가 훌륭한 일을 해볼 만한 때입니다. 지금 국가의 형세는 마치 기절했던

- 을사(乙巳)의 화 : 1545년(명종 원년) 윤원형(尹元衡) 일파 소윤(小尹)이 윤임(尹任) 일파 대윤(大尹)을 숙청하면서 사림이 크게 화를 입은 을사사화를 말함.
- 여경(餘慶) :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한 보답으로 뒷날 그 자손이 받는 경사.
- 이기(李芑)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대윤 윤임(尹任)의 세력을 꺾으면서 을사사화를 일으켰다.
- 윤원형(尹元衡) :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문정왕후의 동생이자, 명종의 외삼촌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던 소윤의 영수로 을사사화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지만, 문정황후

사람이 겨우 소생하여 모든 맥이 아직 안정되지 않고 원기(元氣)* 도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서둘러 약을 써야 살아나는 길을 거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약을 쓰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낫기를 기다리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약을 써야하지만 무슨 약을 써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팔짱을 끼고 둘러보고만 있을 뿐, 한 가지 계책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큰 병을 치르고 난 뒤에 감기가 들기 쉬워, 장차 반드시 고칠 수 없는 위태로운 징후가 생겨 필경 죽는 데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국가의 형세가 이같이 위태로우니, 녹을 먹는 신하들이 두려워하여 나라를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간사한 자를 물리치고 현명한 사람을 나아오게 하는 것이 귀한 이유는 오직 옛날의 폐단을 없애고 새로운 혜택을 펴서 백성의 생활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남곤(南袞)·김안로(金安老)*·이기(李芑)·윤원형(尹元衡)이 나라를 그르친 남은 폐단을 아직 다 씻지 못하였고, 백성을 괴롭히던 가혹한 법들을 아직 개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편안함만 찾고 일을 싫어하여 정사를 밝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 없어, 마치 조참(曹

가 죽자 관직을 삭탈 당함.

- 원기(元氣) : 만물이 생겨나거나 자라면서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서 근본으로 되는 기(氣).
- 김안로(金安老) : 조선 전기의 권신(權臣). 잦은 권력 남용으로 탄핵을 받고 유배되기도 하였으나 다시 기용됨. 정적에게 무서운 공포정치를 한 끝에, 문정왕후의 폐위를 도모하다가 체포되어 유배되고 사사됨.

參)•이 소하(蕭何)•의 뒤를 대신하기만 한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 이는 온 나라를 들어다가 서로 잊고 사는 지역에 내던진 것입니다. 군자와 소인 사이가 한 치도 차이나지 못하니, 아래 백성들의 곤궁한 것과 하늘의 노여움이 되레 무슨 이상한 일이 되겠습니까?

- 조참(曹參) : 소하(蕭何)와 함께 유방(劉邦)을 따라 병사를 일으켜 한나라의 통일대업에 이바지하였다. 소하의 추천으로 상국(相國)이 되어 혜제(惠帝)를 보필했고, 소하가 만든 정책을 충실히 따라 '소규조수(蕭規曹隨)'라는 말이 나옴.
- 소하(蕭何) : 유방을 도와 한나라를 개국한 공신. 한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승상에 올랐으며 모든 제도의 기초를 닦았다.

해설

이 편은 조선 개국부터 율곡이 살았던 당시까지 옛 도학정치를 회복하지 못했음을 논하고 있다. 이미 앞 편에서 도학정치를 행하려면 좋은 임금과 좋은 신하가 만나야 하는데, 당시까지 조선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도학정치를 펼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임금들을 거론하고 있다. 세종 · 문종 · 성종 · 중종 · 인종 · 명종 · 선조가 그들이다. 그런데 문종과 인종은 요절했으니 그 가능성만 보고 그렇게 평가했지만, 중종과 명종 또한 재위시절에 큰 사화(士禍)를 겪었는데도, 그들을 거론한 것은 반드시 좋은 임금이라 말할 수도 없는데 또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다. 태종과 세조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율곡의 속마음을 읽고도 남는다. 단종의 경우는 당시까지도 시호가 복위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 단종은 1698년 숙종 때 서인(庶人)에서 군(君)으로 다시 임금으로 복위되어 묘호(廟號)를 단종이라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무튼 율곡이 이런 왕들을 거론한 것은 이 정도의 왕이라도 제대로 도학으로 왕을 보좌하는 진유가 있었으면 한 번 태평성대를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인 것 같다. 비록 세종같이 성군의 자질이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선왕의 도를 밝혀서 성스러운 임금을 보좌한 신하가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이 때 백성들의 살림은 조금 넉

넉하고 인구가 많아지는 데 그쳤다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 앞 편에서 "우리나라에 수천 년 동안 한 사람의 진유(眞儒)도 없었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기준이라면 조선시대를 통틀어 진유는 한 명도 없다. 왜냐하면 율곡이 앞 편에서 말한 진유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이른바 진유(眞儒)라는 것은 벼슬길에 나아가면 한 시대에 도를 실천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고, 물러나면 만세에 가르침을 전하여 배우는 이로 하여금 큰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

바로 이 기준이다. 그렇다면 이 기준이 너무 높은 것인가? 플라톤이 현실정치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없자, '이상국가'를 저술하여 그 속에 자신이 원하는 국가의 모델을 담았듯이, 율곡 또한 그런 것인가?

나는 율곡이 현실정치에 나아가 관료와 정치가로 활약한 점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평가야 말로 철학자다운 면모라고 본다. 철학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을 논리로 말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현실이 언제나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실 어떤 인물을 진유라는 기준 없이 상대적으로만 평가한다면 황희(黃喜) 같은 사람도 훌륭하고, 그에 버금가는 인물들도 수두룩하다. 만약 비교 우위적인 가치로 사람이나 역사를 평가한다면 제(齊)나라의 관중(管仲)이나 정(鄭)나라의 자산(子産)도 진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철학적 태

도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유학적 세계관에서 볼 때, 아니 더 좁혀서 도학적 가치관에서 볼 때 진유가 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이란 늘 역사와 현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자들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법도 하다. 그러나 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어떤 철학을 하느냐이다. 철학의 세계관과 실천방식에 따라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각자가 종사하는 철학에 따라 현실을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으며, 역사적 인물이나 이전 나라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가령 주체사상이 등장하기 이전에 북한에서 마르크스주의 철학에 따라 서술한 '조선철학사'를 읽어보면, 남한에서 기술한 철학사와 비교해 볼 때 똑같은 인물을 두고도 평가가 상당히 우리와 다르다. 왜 이렇게 다른가? 바로 조선철학사를 기술하는 사람의 역사관이나 철학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도 각자의 역사관이나 철학에 따라 우리 현대사를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현실 정치에 대해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태도를 달리 취할 수도 있다. 그것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기 때문이다.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평가의 근거가 명확하고 내용도 보편타당해야 한다. 개인의 주관적인 관점과 고집만으로 역사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여러분은 조선의 역사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어떻게 보는가?

한문 원전 음미하기

世宗之聖은 前朝所無有也니라. 嘉靖邦家하니 雨暘時若하니라. 崇儒重道하여 養育人材하고 制禮作樂하여 垂裕後昆하니라. 吾東之治가 於斯爲盛하여 克至今日에 遺澤未泯하니 我國萬祀之祚가 肇基於世宗矣하니라.
세종지성 전조소무유야 가정방가 우양시약 숭유중도 양육인재 제례작악 수유후곤 오동지치 어사위성 극지금일 유택미민 아국만사 지조 조기어세종의

世宗: 세종/聖: 성인/前朝: 이전 조정, 곧 고려를 말함/嘉: 아름답다/靖: 편안하다/邦家: 국가/雨: 비/暘: 갬/若: 같다/崇儒: 유학을 높임/重: 중시하다/養育: 기르다/人材: 인재/制禮: 예법을 제정함/作樂: 음악을 만듦/垂: 드리우다/裕: 넉넉하다/後昆: 후손/吾: 나/東: 동녘/治: 다스리다/於斯: 이에, 여기서/盛: 왕성하다/克: 능히/遺: 끼치다/澤: 혜택/未: 아니다/泯: 없어지다/我國: 우리나라/祀: 해, 제사/祚: 복, 운/肇: 비롯하다/基: 터, 기초/矣: 종결의 어조사

해석

세종과 같은 성군은 고려 때에는 없었다. 나라를 아름답고 편안하게 하시니 비가 오고 날이 개는 것이 때에 맞았다. 유학을 숭상하고 도리를 중시하여 인재를 양육했으며, 예법을 제정하고 음악을 만들어 후손에게 넉넉한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에 성대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러 남은 혜택이 아직 끊이지 않고 있으니, 우리나라 만년의 운이 세종 때에 비로소 기틀이 잡혔다.

己卯年間에 有若趙光祖하여 以性理之學으로 被眷
기묘년간 유약조광조 이성리지학 피권
遇之重하니 愛君如父하고 忘身徇國하고 旁招俊乂
우지중 애군여부 망신순국 방초준예
하여 開廣聰明하고 慨然有挽回世道하고 追蹤三五
개광총명 개연유만회세도 추종삼오
之志하니라.
지지

己卯年: 기묘년(1519)/間: 사이/趙光祖: 조광조/性理之學: 성리학/被: 입다/眷遇: 임금이 특별히 사랑하여 대우함/重: 중하다/愛君: 임금을 사랑함/如: ~처럼/忘身: 몸을 잊음/徇國: 나라를 위하여 죽음. 殉國과 같은 뜻/旁: 널리/俊乂: 뛰어난 인재/開廣: 열어 넓힘/聰明: 총명/慨然: 흔쾌히/挽回: 만회/世道: 세상의 도리/追蹤: 자취를 따라 좇음/三五: 삼왕오제/志: 뜻

해석

기묘년에 조광조(趙光祖) 같은 분이 있어서 성리학(性理學)으로 임금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니, 임금을 사랑하기를 어버이처럼 하고 자기 몸을 잊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으며, 뛰어난 인재들을 두루 불러들여 임금의 총명을 열어 넓히고, 흔쾌히 세상의 바른 도리를 만회하고 삼왕 · 오제의 자취를 따르려는 뜻을 가졌다.